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롯과 헤어짐

[창세기 13:1-2]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銀金)**이 풍부하였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공훈과 도우심으로 다시 찾은 아브람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올라갔다. ‘남방’(네택)은 유대 땅의 가장 남쪽 지역 즉 사해(혹은 염해)의 서남쪽 지역을 가리킨다. 아브람은 애굽의 왕에게 양과 소와 압수 나귀와 악대를 얻었기 때문에(창 12:16) 육축이 풍부하였고 또 은금도 많았다. 아브람은 물질적으로 부요하였다.

[3-4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은 벨엘에 이르렀고 벨엘과 아이 사이, 즉 전에 하란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 와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뜻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단 쌓기를 힘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5-7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과 **롯은** 각각 소유물이 많아 그곳에 함께 거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들과 **롯의 가족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했다. 사람은 더불어 살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제한된 땅과 음식물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 가난과 불편함을 참고 이기는 것이 사랑이며 성숙한 인격이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툰다.

[8-9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골육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제안하였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간에도 부득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헤어져서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아브람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다.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는 양보심을 발휘했다. 사람의 다툼은 대체로 욕심 때문에 온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말했다(약 4:1-2).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지 않는다. 사람은 세속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천국만 가장 큰 가치로 알 때 세상 것들을 양보할 수 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 요단 들은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 주위의 들판을 가리킨다. 요단 들은 소알까지 비옥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이었고 사해 남단에 위치했던 것 같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는 황폐하여졌으나 그 당시에는 비옥하여 여호와와 동산 곧 에덴 동산 같고(창 2:8 사 51:3; 겔 28:13) 애굽 땅과 같았다. 에덴 동산에는 강들의 근원들이 있어서(창 2:10) 비옥하였고 애굽 땅도 거대한 나일 강을 인해 매우 비옥하였다.

[11-13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요단 들을 택했고 아브람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사람이 악해서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작은 죄이지만, 고의적으로 혹은 도전적으로 짓는 죄는 큰 죄이다. 사람의 양심은 고의적인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죄가 반복되고 양심이 무디어지면 그는 고의적인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된다.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

롯이 요단 들을 택하고 소돔 성 가까이에 장막을 친 것은 신앙적이지 못했다. 그는 물이 넉넉한 땅이라는 현실적 유익만 생각하여 그곳을 택했고 그가 살 곳이 그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 만일 그가 바른 생각을 했다면, 그는 죄악된 환경을 멀리했을 것이다. 죄악된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롯과 달리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였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창 12:7). 그는 얼마 전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다. 그것은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였다.

[14-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직접 혹은 환상 중에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 둘째는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아브람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수풀’이라는 원어(엘로네)는 ‘테레빈스 나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것은 그가 짐승 제사를 드렸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화로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각오를 상징한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인간의 합당한 삶이요 복된 삶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 4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기도했고 속죄 신앙을 가졌다고 보인다. 아브람의 경건한 삶은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된 삶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4:23). 또 그는 이 세상의 종말과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눅 21:36).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교훈하였다(히 13:15). 또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했다(시 1:1-3).

둘째로, 우리는 아브람에게서 양보심을 배워야 한다. 아브람은 그의 가족의 목자들과 롯의 가족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해결하려 했을 때, 양보심을 발휘하였다. 그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전 1:2). 사람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다투지만, 하나님과 천국에 가치를 두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마 5:5, 7, 9), 또 악한 자들이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하셨다(마 5:39-44).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교훈했다(롬 12:10, 17-18). 또 그는 “너희 관용 혹은 온유

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했다(빌 45).

셋째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악된 환경을 피하자. 롯은 요단 들에 물이 넉넉함 즉 물질적 유여함이라는 조건만 보고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그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나 친구들을 조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후서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잠언 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자.

### 주일오후설교 | 안식년과 희년

[레위기 25:1-7]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본문은 안식년 규례이다. 안식년은 국가적인 절기이었다. ‘다스리다’는 원어(자마르)는 ‘가지를 치다(진지하다)(prune)’는 뜻이다.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말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농사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제7년에는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했다.

안식년에는 농사짓는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했고 곡물이나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일도 쉬어야 했다. 안식년에 밭이나 포도원에 스스로 난 곡물이나 포도는 아무나,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수 있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 끝에 밭을 면제하라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 안식년 규례에 첨가된 내용이다.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일 뿐 아니라, 밭진자들이 밭 면제를 받는 복된 해이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2나 신명기 15:12에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에 자유케 되는 규례는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진 했수가 아니고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계수된 헛수를 가리킨다고 본다.

[8-12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리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본문은 희년(禧年, jubilee)의 규례이다. 희년도 국가적으로 계수되고 선포되는 절기이었다.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난 후 제50년을 가리킨다. 제49년 7월 10일에 나팔을 불으로써 제50년, 곧 희년을 준비시켰다. 속죄일에 나팔을 불으로써 준비시키는 것은 희년에 상징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이기 때문이다. 희년은 자유의 해이었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은 누구나 희년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희년은 만유의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이었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은 먹을 수 있었다.

[13-17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낮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은 희년이 기업의 회복의 해임을 뜻한다. 즉 사람이 가난하여 부득이 집이나 밭 같은 기업을 팔았을 때라도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절기이다.

희년이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나 집을 매매할 때에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땅이나 집의 매매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셨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받게 하며 적게 남았으면 적게 받게 해야 했다.

[18-22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

## 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 첨가하여 말씀 하시기를, 그 규례 때문에 물질적 궁핍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 안정이나 사회적 평안은 섭리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만,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계명 순종에 보장된 평안의 약속은 어느 시대에도나 진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제6년에 3년 쓰기에 족한 복을 주셔서 안식년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제8년에 파종하고 제9년의 추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안식의 시대를 소망하자. 사람은 범죄한 이후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히브리서 4:9-10,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둘째로, 우리의 평안과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사야 48:17-18,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예레미야 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셋째로, 우리는 만유의 회복을 소망하자. 회복은 기업의 회복을 주는 절기로 만유의 회복을 예표한다.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만유의 회복의 때가

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두실 것이라고 말했다(행 3:21).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롬 8:21). 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또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소리가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계 21:1-5). 우리는 이 약속된 만유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자.

### 수요설교

## 신부의 아름다움

[아가서 7:1-6]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넓적다리의 곡선의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혹은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시슴의 쌍대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뭉겔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자의 딸,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신고 바르고 단정하게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의 표인 배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배와 어린 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잘 수행하는 유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목을 가져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처럼(롬 4:17-21)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또 순결하고 통찰력 있는 눈과,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날카로운 코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정신이 성경의 모든 진리로 바르고 뛰어나고 풍성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무리가 됨으로써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